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 도 자 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
 <small>국토교통부가 함께 합니다</small>	<b>배포일시</b>	<b>2018. 11. 21.(수) / 총 2매(본문 2)</b>	
<b>담당 부서</b> 항공안전정책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정의현, 사무관 고상룡, 주무관 홍덕곤 • ☎ (044) 201-4244, 4255, 4256	
<b>보도일시</b>	2018년 11. 2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21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국토부항공사교육기관 협업 정비과정 1기 수료생 81% 취업 4개월 정비특화과정...양질 정비사 양성·취업 지원 확대 추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항공사·교육기관 간 협업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운영해 온 “B737 기종 정비특화과정\*”을 통해 11월 현재 1기 수료생(총 40명)의 81%(33명)가 항공사에 취업하였다고 밝혔다.

\* (B737 기종 정비특화과정) B737 항공기 정비사 양성을 위해 엔진·착륙장치·출입문 및 모의비행장치 등 실습장비를 활용하여 항공기 운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기량을 제고하는 특화과정

○ 현재 채용심사가 진행 중인 수료생(7명)까지 취업하게 되면 취업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.

### < 취업 현황 >

구분	A직업전문 학교	B직업전문 학교	C직업전문 학교
교육기간	‘18.4.29. ~ 8.29.	‘18.5.28. ~ 9.18.	‘18.6.4. ~ 9.21.
수료인원	13명	15명	12명
취업인원	10명	15명	8명
취업률	77%	100%	67%

□ B737 기종 정비특화과정은 그동안 항공사에서 소속 정비사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나,

○ 최근 저비용항공사(LCC) 및 정비업(MRO) 확대 등으로 B737 등 중·대형 항공기 정비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하여, 기존의 항공사 교육훈련만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이 충분치 않았다.

- 이에, 정부·항공사·교육기관 간 협업\*을 통해 외부 전문교육 기관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(4개월)을 개발, 선선발·후교육 제도를 통해 항공정비사 기본면장을 소지한 미취업 청년들을 선발하여 교육훈련 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.

\* (교육기관) 교육시설·장비 등을 갖추어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훈련생 선발, (항공사) B737 기종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현업 정비사를 교관 요원으로 지원, (정부) 훈련비 지원 및 취업 연계

□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“이번 취업성과를 바탕으로 도입·운항이 늘어나고 있는 A321 기종 등 시장 맞춤형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속 개발하여 항공사 요구수준의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실업을 해소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고상룡 사무관(☎044-201-425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